

[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  
blogId=xxroamxx&logNo=110098883930&viewDate=&currentPage=1&listtype=0](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xxroamxx&logNo=110098883930&viewDate=&currentPage=1&listtype=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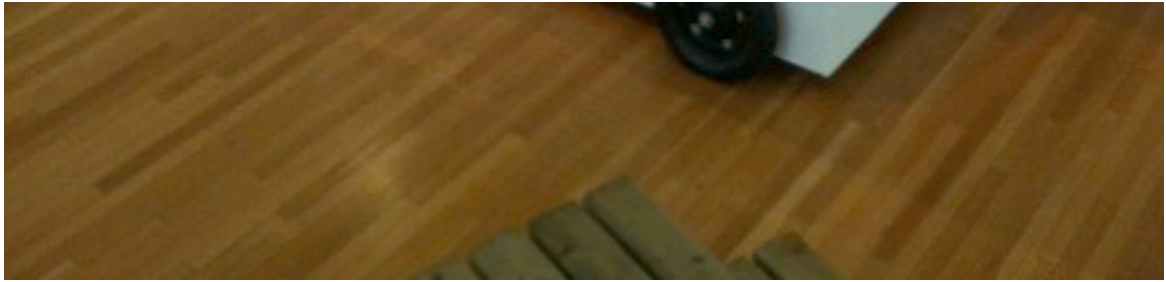
전체보기 (2411)

호른 전이나 메어리 블레어 전은 괜찮았는데 째... 이번엔 입맛만 다신 느낌. 뭐, 그럴 때도 있는 거지. 이번엔 째이었다는 것으로.

상설전 쪽은 크로니컬 / 일본 양데팡당 전(1947-1963). 이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나로서는 이것도 째이었음. 규모도 작품도 영... -\_-; 1층에 피피로티 리스트의 비디오 아트가 전시중이었는데 이게 가장 좋았다.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느긋하게 감상하고 왔음.

하여튼 네덜란드 아티스트전은 사진촬영이 일부 가능했기 때문에, 몇 장 찍었다.





**Martijn Engelbregt** CC/ BY-NC-ND "이웃 샐"

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잇자라는 의도로, 이웃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굿즈를 판매/ 전시중.

모르스 신호를 보내듯, 벽에 대고 신호를 두드리라는 모래가 든 망치같은 게 재밌었다.

(길게-짧게-길게 : 파티 시작합니다. 와주세요. ...라든가)





**Martijn Engelbregt** CC/ BY-NC-ND

네덜란드에서는 이웃집에 나눠준 실제 블록으로 거리에 구조물을 쌓았다고 하는데, 도쿄의 작은 미술관에서는 폭 3cm 정도의 미니 블록으로 대체된 관객 참여형 인스톨레이션. 입장시에 작은 블록을 하나씩 받아서, 접착제로 붙이면 완성.

[출처] [조금 걸었다.](#) |작성자 [롬](#)